

수 많은 장애물 극복, 종합반 두 달 과정이 합격의 80% 완성입니다.

공단기 관리형 종합반 성적 현황 (강남)

구분	국어	영어	한국사	총점	출석율
진단고사	50	60	45	155	
중간고사	80	90	70	240	100%
기말고사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	

● 혼자서 공부하는 시기와 같이하는 시기는 분명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을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늦게 자던 버릇 때문에 4시간 밖에 못 자면서 공부했지만 적응이 되자 11시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라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지옥철에서 40분 동안 서가는 것, 앉아만 있으니 소화 불량에 살이 찌는 등 공부 외적인 부분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 이걸 참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사랑니를 뺀 시기라 병원에 간 것만 제외하고는 지각이나 결석 없이 항상 같은 시간 등원하여 4~7번째 줄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 단어를 외우고, 전 날 배운 내용을 복습테스트로 피드백하며 실력을 향상시키고, 주변 친구들을 보며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환경이라 종합반이라는 게 소화만 잘하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러다보니 소화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결국 두 달(1순환)만 다니고 그만 두었지만 이때 한 공부 제 합격의 80%를 차지한다고 확신합니다. 학원 시스템을 성실히 따라가다 보니 개념이 잡히고 실력이 차곡 차곡 쌓이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큰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그만 두면 더 자율적으로 공부를 잘 할 줄 알았으나, 잠만 늘고 핸드폰만 하면서 공부량이 훨씬 줄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꼭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시기였기에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강남 종합반에 다닌 것은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합반을 두 달 다니자, 시험 범위의 80%가 1순환 완성이 되었습니다. 1순환을 1순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라고 생각한 것이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순환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공부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꼼꼼하게 학습했습니다.

대단한 의지를 가진 독종을 제외하고 저와 같은 일반인이 혼자서 2달 동안 다섯 과목을 1순환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안다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무리이고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 날 정해진 분량을 정해진 시간에 끝낸다는 것.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꾸준히 정해진 양만 잘 소화해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보다 어려운 게 바로 이 '꾸준히'인데 종합반에 다니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